

\* 문법 파트별 꼭 풀어야 할 기출문제 및 EBS 문제 모음입니다. 이 문제들은 꼭 풀어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 14주차 - 단어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06)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나 ‘-이’가 결합된 단어들 중에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사 ‘걸음’과 동사의 명사형 ‘걸음’, 명사 ‘높이’와 부사 ‘높이’가 그러하다. 이는 용언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의 형태가 같고, ‘높다’ 등의 일부 형용사에 결합하는 명사 파생 접미사 ‘-이’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부사는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다른 부사어나 서술어 등을 수식한다.

한편 이들 ‘-(으)ㄴ’과 ‘-이’가 중세 국어에서는 그 쓰임에 따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형태만으로 품사를 구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으)ㄴ’은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과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음’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흔 거름 나소 거름(한 걸음 나아가도록 걸음)’에서 확인된다. ‘견-’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어근이나 용언 어간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으)ㄴ’과 ‘-음’이 각각 결합한다.

앞서 말한 현대 국어의 두 가지 ‘-이’ 역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에 각각 대응한다. 이러한 구별은 ‘나뭇 노퍽(나무의 높이)’와 ‘노퍽 논 저비(높이 나는 제비)’에서 확인된다. ‘높-’과 달리,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어근에는 모음조화에 따라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한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여서 모음조화에 상관없이 ‘-이’가 결합한다.

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흔 여름 여루미(좋은 열매 열림이)’에서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 둘의 품사가 다르겠군.
- ② ‘거름’과 ‘거름’의 형태를 보니, ‘거름’은 파생 명사이고 ‘거름’은 동사의 명사형이겠군.
- ③ ‘거름’과 ‘노퍽’의 모음조화 양상을 보니, 중세 국어 ‘높-’에는 ‘-음’이 아니고 ‘-음’이 결합하겠군.
- ④ ‘노퍽’과 ‘노퍽’의 형태를 보니, ‘노퍽’는 파생 부사이고 ‘노퍽’는 파생 명사이겠군.
- ⑤ 중세 국어의 형용사 ‘곤다’, ‘곤다’가 부사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 [A]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에 해당하는 예로만 묶인 것은?

- ① [ 많이 얕이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 ② [ 떨치 볶음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  
오빠는 몹시 기쁨에도 내색을 안 했다.
- ③ [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무용수들이 군무를 춤과 동시에 조명이 켜졌다.
- ④ [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나는 그를 온전히 믿음에도 그 일은 맡기고 싶지 않다.
- ⑤ [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소리쳤다.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711)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sup>이</sup>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sup>이</sup>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sup>였</sup>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sup>시</sup>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빈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sup>이</sup>'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sup>이</sup>'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sup>였</sup>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sup>시</sup>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4.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납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늘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졌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09)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

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5.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5번, 6번)

6.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지회는 목소리가 굽다.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굽다'로 분석되었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었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었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었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었군.

7.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1706)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8. <보기>의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609 고1)

< 보 기 >

※ 과제 : 다음 예문은 띄어쓰기가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를 통해 띄어쓰기 규정을 알아볼까요?

- ㉠ 너는 일밖에 모르니?
- ㉡ 연필 두 자루가 있습니다.
- ㉢ 나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 ㉣ 너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해.
- ㉤ 청군 대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했다.

- ① ㉠ : '일'과 '밖에'를 붙여 쓴 것을 보니, 조사는 붙여 쓰는군.
- ② ㉡ : '두'와 '자루'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군.
- ③ ㉢ : '웃고만'과 '있었다'를 띄어 쓴 것을 보니, 본용언끼리는 띄어 쓰는군.
- ④ ㉣ : '아는'과 '척'을 띄어 쓴 것을 보니, 의존 명사는 띄어 쓰는군.
- ⑤ ㉤ : '청군', '대', '백군'을 각각 띄어 쓴 것을 보니, 두 말을 이어 줄 때에 쓰이는 말은 띄어 쓰는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9.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11A 고2)

< 보 기 >

- ㉠ 엄마와 그녀는 다투었다. / \*그녀는 다투었다.
- ㉡ 그는 밥을 안 먹었다. / \*그는 안 밥을 먹었다.
- ㉢ 아빠가 용돈을 아이에게 주었다. / \*아빠가 용돈을 주었다.
- ㉣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 /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
- ㉤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 \*경제 문화가 및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을 보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에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군.
- ② ㉡을 보니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는군.
- ③ ㉢을 보니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 되기도 하는군.
- ④ ㉣을 보니 체언을 꾸며주던 부사어가 위치를 이동하면 수식하는 성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군.
- ⑤ ㉤을 보니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어는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0.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04A)

< 보 기 >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합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14주차 - 문장

11.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804)

< 보 기 >

ㄱ.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ㄷ.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 ① ㄱ은 ㄴ과 달리,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② ㄴ은 ㄱ과 달리, 부사절이 사용되어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③ ㄷ은 ㄴ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한 절이 있다.
- ④ ㄱ과 ㄷ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⑤ ㄴ과 ㄷ은 모두 하나의 안긴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겨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2.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03)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 ① ㉠, ㉢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 ㉢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 ④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⑤ ㉢, ㉣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07)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선생님과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아버지와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이어진문장'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603)

< 보 기 >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하나뿐이어서 홑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홑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이때의 '와/과'는 접속 조사로, '자유'와 '평화'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한편, '와/과'는 '빠르기가 번개와 같다.'나 '그는 당당히 적과 맞섰다.'처럼 비교의 대상이나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서술어가 하나이면 홑문장이 된다.

- ① 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 ② 그녀는 집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 ③ 고향의 산과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
- ④ 성난 군중이 앞문과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 ⑤ 그 사람과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5.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04B)

< 보기 >

원래 문장	표현하려는 의미	수정한 문장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자 함.	㉠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야구 경기임.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	㉢
민수는 아침에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	㉣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	㉤

- ① ㉠: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 ② ㉡: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 ③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
- ④ ㉣: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
- ⑤ ㉤: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6.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1B)

< 보기 >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 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7. ㉠~㉣ 중 수정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09B 고2)

검토 사항	원래 문장	수정한 문장
시제 표현이 적절한가?	철수는 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간다.	㉠
피동 표현의 사용은 적절한가?	그가 다쳤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
조사의 쓰임이 적절한가?	언니는 자식으로써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 적절한가?	나는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다.	㉣
의미가 중복되는 어휘가 있는가?	그녀는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을 돌이켜 회상했다.	㉤

- ① ㉠: 철수는 어제 자료를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
- ② ㉡: 그가 다쳤다고는 믿겨지지 않는다.
- ③ ㉢: 언니는 자식으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했다.
- ④ ㉣: 나는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 ⑤ ㉤: 그녀는 사진을 보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8.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07B)

- ①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  
→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 ② 너는 반드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너는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③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 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19. <보기 1>의 ㉠~㉣ 중 <보기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 수특)

〈보기 1〉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주격 조사 ‘께서’를 붙이는 방법,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으)시-’를 어간에 붙이는 방법, ㉡주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을 쓰는 방법이 있다. 한편, 객체를 높이는 방법은 ㉢부사어를 높이는 조사 ‘께’를 체언에 붙이는 방법, ㉣객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을 쓰는 방법이 있다. 그 외 ㉤특수한 명사를 써서 어떤 대상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보기 2〉

어제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할머니께서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한 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달 보름께 한 번 더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러 갈 생각입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0. <보기>를 참고할 때, 제시된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2019 수특)

〈보기〉

문장 전체 서술어의 시제는 서술어의 활용 형식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관형사절 내 서술어의 시제는 형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문장 전체의 시간 해석을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가령, “나는 청소하는 동생을 도왔다.”에서의 ‘-는’은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지만 문장 전체의 시간 해석을 고려하면 ‘청소하는’은 발화시, 곧 말을 하고 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석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해석된다. 그런데 “그는 아마 먹은 음식을 다시 찾지는 않을 것이다.”에서의 ‘-은’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지만 ‘먹은’은 발화시, 곧 현재를 기준으로 해석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① 지난주에는 집에서 읽을 책 10권을 구입했다.  
 ② 우리는 그가 남몰래 선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  
 ③ 동생은 소풍 때 먹을 음식을 미리 싸 두었다.  
 ④ 나는 좋은 영화라면 본 영화도 또 볼 것이다.  
 ⑤ 언니는 우체국 가는 길에 은행에 들를 것이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14주차 - 사전 및 대화

21.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11B)

같이[가치]

1[부]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2[조]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 【(...과)...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 함께하다 ①.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 함께하다 ②.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로군.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 2 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2.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10)

< 보기 >

**크다** [커, 크니]  
 [I]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예 키가 크다.  
 [II] 동사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예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크지 못한다.

**키우다** [...을] [키우어(키워), 키우니]  
 크다 [II]의 사동사

- ① ‘크다’[I]과 ‘크다’[II]는 별도의 품사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겠군.
- ② ‘크다’[I]과 ‘크다’[II]의 반의어로는 모두 ‘작다’가 가능하겠군.
- ③ ‘크다’[I]의 용례로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크다’[II]는 사동사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늘어나는군.
- ⑤ ‘크다’와 ‘키우다’는 모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어간 끝의 모음이 탈락하는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3. <보기>의 담화 상황으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03A)

< 보기 >

A: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그런데 ㉠ 그것이 사실이야?  
 B: 아니, 내가 영희에게 민수 말이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 잔기는 분명히 말하고 가져갔다고 그러더라.  
 A: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됐나 보다. ㉢ 아무나 좋으니 일단 나서서 민수와 영희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나저나 어제 저녁에 교실에 있었던 애들이 ㉣ 누구였는지 기억나?  
 B: 나도 ㉤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 ① ㉠은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려고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② ㉡은 B가 앞서 언급한 ‘영희’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③ ㉢은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④ ㉣은 화자가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한 대명사이다.
- ⑤ ㉤은 A가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이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14주차 - 음운 및 발음규정

24.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806)

< 보기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답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없지[언찌]’와 ‘뭉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널레]’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5.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11)

< 보기 >

㉠ 흙일 → [흥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6.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711)

< 보 기 >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에는 음운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운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뭉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운]’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7. <보기>는 한글 맞춤법 수업 중 준말과 관련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11 고1)

< 보 기 >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

예) 간편하게 → 간편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 ㉡

예) 아무렇다, 어떻다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이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줄어진 형태로 관용되고 있는 형식으로,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 ㉢

예) 넉넉하지 → 넉넉지

- ① ‘다정하다’를 ‘다정타’로 적는 것은 ㉠의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분발토록’은 ㉠에 따라 ‘분발하도록’에서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ㄷ’과 어울려 거센소리로 된 결과이겠군.
- ③ ‘이렇다’를 ‘이러타’로 적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무심하지’는 ㉢의 규정에 따라 ‘하’가 줄어진 형태인 ‘무심지’로 적을 수 있겠군.
- ⑤ ‘깨끗하지’는 ‘하’ 앞에 안울림소리 받침이 오는 것으로 보아 ㉢의 규정에 따라 ‘깨끗지’로 적을 수 있겠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8.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603)

< 보 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변동에 대해 잘 기억하는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낫다’와 ‘낱다’가 활용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무엇일까요?

학 생: 둘 다 음운의 (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혼동해서 틀리곤 하지요. (가) 현상이 일어나는 용언들 가운데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모두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반면,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합니다. ‘낫다’와 ‘낱다’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표기 반영 여부 활용 유형	반영	미반영
규칙 활용	㉠	㉡
불규칙 활용	㉢	

학 생: ‘낫다’는 (나), ‘낱다’는 (다)에 해당됩니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축약  | ㉠   | ㉢   |
| ② | 탈락  | ㉡   | ㉠   |
| ③ | 탈락  | ㉢   | ㉡   |
| ④ | 교체  | ㉡   | ㉢   |
| ⑤ | 교체  | ㉢   | ㉡   |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29.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1611B)

< 보 기 >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합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웃음(웃+음), 바가지(박+아지)
- ④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꿈(꾸+ㅁ), 사랑니(사랑+이)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0.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1511A)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1.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11B)

—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다[익따], 읊는[음:는], 닦지[닥찌], 읊기[읍끼], 밟는[밤:는]

- ① ‘읽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는]’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닦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끼]’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밟는[밤:는]’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2.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1511B)

- ① 엇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각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3. 다음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 수특)

음절의 수가 줄어들면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음절에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하므로 모음의 수가 줄면 자동적으로 음절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음의 수가 줄어드는 방식은 반드시 모음이 탈락하거나 또는 두 개의 모음이 한 모음으로 축약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령 단모음이 탈락하지 않고 반모음인 ‘j’나 ‘w’로 바뀌어도 모음의 수가 줄어든다. 이럴 경우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음절 수는 줄게 된다.

- ① ‘아이’가 줄어서 ‘애[애:]’가 되었다.
- ② ‘쏘-’에 ‘-아’가 결합하여 ‘썩[썩:]’가 되었다.
- ③ ‘쓰-’에 ‘-어서’가 결합하여 ‘써서[써서]’가 되었다.
- ④ ‘깨-’에 ‘-어서’가 결합하여 ‘껴서[껴:서]’가 되었다.
- ⑤ ‘가-’에 ‘-아서’가 결합하여 ‘가서[가서]’가 되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14주차 - 고전 문법

34.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03)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 자료를 보고, 중세 국어의 조사에 대해 탐구해 보자.
학습 자료	ㄱ. <b>드리</b> 즘은 ㄹ때 <b>비취요미</b> 곧흐니라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침과 같으니라) ㄴ. <b>네</b> 후(後)에 <b>부테</b> 드외야 (네가 후에 부처가 되어) ㄷ. <b>부텃</b> 모미 여러 <b>가짓</b> 상(相)이 ㄹ즈샤 (부처의 몸이 여러 가지의 상이 갖추져 있으시어) ㄹ. <b>사스미</b> 등과 <b>도즈기</b> 입과 눈 (사슴의 등과 도적의 입과 눈) ㅁ. <b>사르미</b> <b>모물</b> 득(得)호고 <b>부터</b> 를 만나 잇느니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활동 결과	(가)

- ① ㄱ의 ‘드리’와 ‘비취요미’에서 ‘이’가 각각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② ㄴ의 ‘네’에서 ‘ㅣ’가 주격 조사로, ‘부테’에서 ‘ㅣ’가 보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③ ㄷ의 ‘부텃’과 ‘가짓’에서 ‘ㅅ’이 모두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④ ㄹ의 ‘사스미’와 ‘도즈기’에는 ‘ㅇ’이 각각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ㅁ의 ‘모물’, ‘부터를’에는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5.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711)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ㅁ스물 <u>열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ㅁ스미 <u>열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르믈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ㅁ스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홀어진</u>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6.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407B)

<보 기 >	
의문문에는 청자에게 가부(可否)를 묻는 판정 의문문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 있다. 중세 국어의 경우, 판정 의문문에는 ‘-가’, ‘-녀’ 등의 어미가 쓰이고, 설명 의문문에는 ‘-고’, ‘-뇨’ 등의 어미가 쓰인다.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나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쓰인다.	
ㄱ.	이 썩리 너희 <b>종가</b>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냐?)
ㄴ.	이제 <b>엇더호고</b> (이제 어떠하냐?)
ㄷ.	네 <b>모르던다</b> (너는 모르느냐?)
ㄹ.	네 <b>엇데 안다</b> (너는 어떻게 아느냐?)

- ① ‘ㄱ’의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종가’를 ‘종고’로 바꿔야겠군.
- ② ‘ㄴ’의 ‘엇더’ 대신 ‘평안’이 쓰이면, ‘호고’를 ‘호가’로 바꿔야겠군.
- ③ ‘ㄴ’과 ‘ㄹ’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군.
- ④ ‘ㄷ’의 ‘너’ 대신 3인칭인 ‘그’가 쓰이면, ‘모르던다’를 ‘모르던고’로 바꿔야겠군.
- ⑤ ‘ㄷ’과 ‘ㄹ’을 보니,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의문형 어미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37.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9 수특)

· 학습 목표 :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이해한다.

· 학습 자료

㉠孔子(공자) | 曾子(증자) 드러 날러 굴으샤디 몸이며 얼굴이 며 머리털이며 ㉡솔흔 父母(부모)의 ㉢받즈온 ㉣거시라 敢(감)히 혈위 상히오디 아니 흙이 효도의 비르소미오 몸을 세워 道(도)를 行(행)하야 일흠을 後世(후세)에 배퍼 ㉤뵈 父母(부모)를 현더케 흙이 효도의 ㅁ춤이나라

-『소학언해』-

[현대어 풀이]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로되, 몸이며 모습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님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어서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배풀어 부모님을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다.

· 학습 자료의 활용 계획

㉠
---

- ① ㉠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없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② ㉡ : 중세 국어 시기에는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③ ㉢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체를 높이는 형태소로 ‘-줍-’이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④ ㉣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과 조사를 분리하지 않고 이어서 적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⑤ ㉤ :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었다는 사례로 제시한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38. <보기>를 참고할 때, 현대 국어 중 ㉠의 예와 중세 국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2019 수특)

< 보기 >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국어에도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어 용언이 많이 있다. 그런데 두 시기에 쓰인 합성어를 살펴보면 ㉠‘용언 어간+어미+용언 어간’으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와 ㉡‘용언 어간+용언 어간’으로 구성된 비통사적 합성어의 형태가 다양하게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다.’라는 뜻의 합성어로는, 현대 국어에서는 비통사적 합성어 ‘뛰놀다’와 통사적 합성어 ‘뛰어놀다’가 모두 쓰이고 있고, 중세 국어에는 비통사적 합성어 ‘뛰놀다’가 쓰였다.

	현대 국어 중 ㉠의 예	중세 국어 중 ㉡의 예
①	그는 한 걸음을 더 <u>나아갔다</u> .	棺(관) 알퐁 <u>나아가</u> (관 앞에 나아가)
②	네가 드디어 <u>돌아오다니</u> 꿈만 같구나!	지브로 <u>도라오실</u> 제 (집으로 돌아오실 때)
③	그건 내가 평소에 잘 <u>듣보아</u> 놓은 일이야.	귀에 <u>듣보미</u> 없거든 (귀에 들봄이 없거든)
④	내가 <u>빌어먹는</u> 형편에 집이 있을 리 없지.	나라해 <u>빌머그라</u> 오시니 (나라에 빌어먹으러 오시니)
⑤	승강기가 고장 나서 계단을 <u>오르내렸다</u> .	이 양으로 세 번 <u>오르느리샤</u> (이 모양으로 세 번 오르내리시어)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39~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 수특)

한글 맞춤법 제 1항에서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가 들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적는 방식’이다.

소리대로 적는 방식은 말 그대로 소리와 표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이다. 소위 표음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음, 하늘, 불’ 등과 같은 형태소의 표기를 보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이러한 부류가 소리대로 적는 방식의 예에 속한다.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도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 가령 불규칙 용언에 속하는 ‘낫-’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아나, 나오니’ 등으로 표기하는데 이것 역시 소리대로 적은 예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어법에 맞도록 적는 방식’은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음주의와 구별하기 위해 표의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령 ‘옷’의 받침 ‘ㅅ’은 ‘옷도, 옷만’에서는 각각 ‘ㄷ’과 ‘ㄴ’으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ㅅ’으로 고정시켜 표기한다. 또한 ‘옷이, 옷은, 옷을’에서 받침 ‘ㅅ’은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서 발음함에도 불구하고 받침으로 적는다. 이것은 모두 소리대로 적는 것이 아니고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결과이다. ‘먹어, 먹은’처럼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적은 것이나, ‘높이, 길이’처럼 어근과 접사를 분리하여 적는 것도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핀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리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표기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 동일한 환경에서 중세 국어는 소리대로 적는 반면, 현대 국어는 어법에 맞게 적음으로써 두 시기 국어의 표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가 올 때를 들 수 있다. 가령 용언 어간 ‘먹-’ 뒤에 ‘-어, -으니’와 같은 어미가 결합할 때 중세 국어 시기에는 소리대로 적어서 ‘머거, 머그니’가 되지만, 현대 국어는 어법에 맞도록 적어서 ‘먹어, 먹으니’가 되는 것이다.

39.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밥’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할 때 ‘밥이’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② ‘버들’에 ‘나무’가 결합한 합성어를 ‘버드나무’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③ ‘老人’을 원래 음을 밝힌 ‘로인’으로 적지 않고 ‘노인’으로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은 것이군.
- ④ ‘잎’에 접미사 ‘-아리’가 결합된 파생어를 ‘이파리’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 ⑤ ‘읽-’에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을 항상 ‘읽’으로 고정시켜 적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군.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40.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의 ‘도박’을 현대 국어에서는 ‘도와’로 표기한다.
- ② 중세 국어의 ‘어러’를 현대 국어에서는 ‘얼어’로 표기한다.
- ③ 중세 국어의 ‘사르미’를 현대 국어에서는 ‘사람이’로 표기한다.
- ④ 중세 국어의 ‘더프며’를 현대 국어에서는 ‘덜으며’로 표기한다.
- ⑤ 중세 국어의 ‘얼구른’을 현대 국어에서는 ‘얼굴은’으로 표기한다.

이 문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 빠른 정답 - 14주차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	④	16	②	31	⑤
2	④	17	②	32	②
3	③	18	④	33	③
4	④	19	④	34	④
5	②	20	⑤	35	③
6	②	21	②	36	④
7	①	22	④	37	③
8	③	23	①	38	④
9	①	24	①	39	④
10	③	25	②	40	①
11	⑤	26	⑤		
12	①	27	④		
13	④	28	③		
14	⑤	29	④		
15	④	30	③		

# 정답과 해설 - 14주차

## 단어

### 1. ④

① ‘-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라고 했고, ‘-움’은 명사형 전성 어미라고 했으니 각각 명사, 동사로 품사가 다르겠네요. 접사는 품사를 바꿔주고, 어미는 품사를 바꾸지는 못한다! 이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됩니다.

② 1번 선지랑 똑같은 원리네요.

③ ‘-거름’과 ‘-노퍽 |’는 음성 모음조화가 지켜졌으니 ‘-높’에는 양성 모음조화를 지키기 위해 ‘-움’이 결합하겠죠.

④ ‘-으 |’는 명사 파생 접미사고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정답이네요.

⑤ 부사 파생 접미사는 ‘-이’ 하나 밖에 없어서 모음조화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2. ④

-> ‘-ㅁ,음,기’와 같은 특정한 음운은 어미로도 쓰이고, 접사로도 씁니다. 그럼 또 이 둘을 비교하는게 핵심이겠죠? 간단합니다. 어미와 접사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 특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접사는 특정 단어의 뜻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사 ㅁ,음,기 등은 명사로 품사를 변화시켜주는 ‘명사화 접미사’입니다. 이게 명사형 전성어미와 헷갈리는 이유는 모습이 같기 때문인데, 둘을 구분하는 건 매우 간단하겠죠? 바로 ‘품사 변화 여부’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어미는 문장 성분을 정해줄 뿐 품사는 바꾸지 못하는 반면, 접사는 품사 자체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품사를 바꾸면 접사, 못 바꾸면 어미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어미 : 품사 변화x, 부사어와 호응(why? 여전히 용언이기 때문), 서술성이 있음  
접사 : 품사 변화o, 관형어와 호응(why? 명사, 즉 체언으로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술성이 없음

여기서 서술성이 있다 없다하는 건 주어와 호응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의 상태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서술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면 반드시 겹문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해도 되겠네요.

① ‘많이’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많이 안다.’라는 식으로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얹’은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즉,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의 사례가 맞습니다. 반면 ‘슬픔’은 ‘격한’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고, ‘격한 슬픔다.’라는 식으로 서술어로 쓰일 경우 어색하기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사용된 케이스입니다. 품사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집중하세요!

② ‘멀치 볶음’에서 멀치 뒤에 생략된 조사가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감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입니다. 즉 멀치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관형어라는 것이죠. 그럼 ‘볶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쓰인 경우네요. 반면 ‘기쁨’은 ‘몹시’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의 사례네요.

③ ‘큰’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 일단 ‘묶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명사네요. ‘춤’은 ‘무용수들이 군무를 춘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므로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의 사례네요.

④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므로 ‘도움’은 ㉠의 사례가 맞고, ‘나는 그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며 ‘온전히’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 ‘믿음’도 ㉠의 사례가 맞네요.

⑤ ‘울음’이 ‘아이가 운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기능하므로 ㉠의 사례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해당 문장은 ‘아이가 운다’라는 문장이 안긴 케이스가 아니고 ‘울음이 섞이다.’라는 문장이 안긴 케이스이므로 ‘울음’은 명사입니다. 반면 ‘웃음’은 ‘밝게’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 ㉠의 사례겠네요.

### 3. ③

① ‘비워’의 어간은 ‘비우-’죠? ‘비다’의 어간 ‘비-’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 만들어진 것이니 둘의 어간은 다르죠.

②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건 맞는데, ㉠에서의 ‘높이’는 명사가 아닌 부사로 쓰였네요. 품사의 판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 꼭 신경써주세요.

③ 일단 ‘높이’는 명사 맞고, 지문에서 명사가 된 단어의 어간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얘가 정답이네요.

④ 지문에서 아니라고 했어요.

⑤ 이걸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오시기’는 ‘오+시+기’로 분석이 되네요. 지문 마지막 문단에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고 했으니 ‘기’는 접미사는 아니네요.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인 ‘기’일테고, (전성어미의 예시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아래에 적어둘게요.)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도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사처럼 보이게 하는거지, 명사가 되는 건 아니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까.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접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사가 무서운 농민 것이구요. 아무튼 ‘오시기’는 명사가 아닌 동사이기에 5번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2017 수능은 정말 너무나 시험이었어요. 문법 문제도 이렇게 극혐으로 내고, 비문학도 과인포퍼 반추위 보험 3대장을 내버렸으니...

\*전성 어미의 예시 - 명사형 : ㅁ,음,기  
- 관형사형 : ㄴ,은,르,던  
- 부사형 : 게, 도록, 이

### 4. ④

① 사동/피동을 구별하는 팁은 ‘-게 하다’, ‘-게 되다’를 넣어보는 겁니다. 전자는 사동, 후자는 피동이에요. ‘형이 동생을 울게 했다’ 괜찮은데, ‘그는 지구본을 돌게 됐다??’ 이상하죠? ‘그는 지구본을 돌게 했다’가 되어야 하니 둘 다 사동이네요.

② ‘이제야 마음이 놓게 하다’ 이것도 이상하고, ‘우리는 용돈을 남기게 됐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③ ‘공책이 가방에 누르게 했다.’ 이상하고.. ‘옷이 못에 걸려 찢기게 됐다.’ 이걸 괜찮네요.

④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게 했다.’ 오 괜찮고,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기게 됐다.’ 이것도 괜찮네요. 답이네요.

⑤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게 했다.’ 이걸 괜찮은데,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다.’ 이걸 좀 어색하죠? 만약 ‘-게 하다’, ‘-게 되다’로 애매하면 사동과 피동의 정의인 ‘시킨다’, ‘당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시키는거지,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 5. ②

① 이런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기 위해서는 접사에 대한 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은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생길 겁니다. 일단 '나들이'는 '나들이 + 옷'으로 나 누어지고, '나들이'의 경우에는 '나들'이라는 어근에 '이'라는 명사화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 어근=합성어이므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라는 건 틀린 말이네요. 파생어는 어근+접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자체는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한 단어로 인식되니, 하나의 어근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생어+어근은 어근+어근과 마찬가지로 합성어인 것이죠.

② '눈웃음'은 '눈 + 웃음'이네요. 눈은 eye를 뜻하는 어근이고, '웃음'은 '웃-'이라는 어근에 '음'이라는 명사화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니 1번 선지와 같은 상황이네요. 어근+파생어는 합성어이니 정답이네요.

③ '드높이다'는 '드'라는 접사와 '이'라는 접사가 '높-'이라는 어근 앞 뒤로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네요. 합성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집집이'는 '집집+이'이고, '집집'은 '집+집'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네요. 합성어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 파생어가 된 것이죠.

⑤ '놀이터'는 '놀이+터'이고, '놀이'는 '놀- + 이'로 이루어진 파생어네요. '터'는 어근에 해당하니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입니다. 참고로 '터'를 접사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특정 단어가 접사인지 어근인지 헷갈릴 때는 조사를 붙여보면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터를 잡다', '터가 좋다.'는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 '터'는 어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6. ②

① 지문에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하는 방법은 '주어+서술어'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 '목소리가 곱다'라는 서술절이 안긴 문장이니 '지희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겠네요.

②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 선지를 그냥 넘겼는데, 분명히 '주어+서술어'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포가'가 주어가 맞나요? 그렇다면 도착했다고 들은 주체가 소포라는 건데, 무슨 문학에서 의인화를 쓴 것도 아니고 절대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죠? 이 문장에는 생략된 주어와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③ 1번

④ 선지랑

⑤ 똑같죠?

## 7. ①

① 문제가 약랄해요. 그냥 다른 설명도 없이 비통사적 합성어 찾아라! 하고 있네요. 아래에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정리해둘테니 꼭 숙지하십시오. '뛰노는'은 '뛰어놀다'라는 원형에서 '어'라는 연결 어미가 생략된 비통사적 합성어네요. 애가 바로 정답입니다.

② '몰라볼'을 분석해보면, '모르다+보다'의 구성으로 '모르+아(연결 어미)+보다'가 '몰라+보다'가 된 형태입니다. 즉, 연결 어미가 생략되지 않고 동사 어간과 합쳐져 '몰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 '몰라볼'은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③ '고'라는 연결 어미로 이어진,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하네요.

④ '나'이라는 어미가 살아있는 통사적 합성어네요.

⑤ '은'이라는 어미가 살아있는 통사적 합성어네요.

\* 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과 같은 유형. (명 + 명), (관 + 명), (주어 + 서술어), (부사어 + 서술어) .... + 조사 생략  
ex. 돌다리, 작은형, 힘들다(조사 생략)

\* 비통사적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가 아닌 것.

1. 어미 생략 : 날(고)뛰다, 뛰(어)놀다, 댔(은)밥

2. 잘못된 수식 (대표적으로 부사어 + 명사) : 부슬비, 함박눈

3. 우리말과 다른 한자어 어순 : 등산 (원래 '산을 오르다'이므로 '산등'이어야 함), 등교 (원래 '학교를 가다'이므로 '교등'이어야 함)

## 8. ③

① 체언과 조사는 원래 붙여쓰는거죠?

② 그러고 있네요.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맞습니다.

③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별도 기출에서 3점짜리로 출제된 적이 있으니 (1506AB) 꼭 숙지해둬야겠죠? 본/보조 용언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둘 사이에 연결 어미 '-서'를 붙여보는 겁니다. 말이 되면 본+본 구조이고, 말이 안 되면 본+보조 구조입니다. 이걸로 판단이 힘들 때, 각 용언을 하나씩 써도 말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말이 되거나 본래 의미가 살아있으면 본+본 구조이고, 말이 안 되거나 본래 의미가 사라지면 본+보조 구조입니다. 어렵다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정이는 티비를 보고 잤다.' 라는 문장은 '나정이는 티비를 보고(서) 잤다.'로 바뀌도 말이 되고, '나정이는 티비를 본다.', '나정이는 잤다.' 모두 말이 되므로 본+본 구조인 것입니다. 반면, ㉠은 '나는 그저 웃고만(서)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고 '나는 그저 웃었다.', '나는 그저 있었다.'로 바꾸면 뒷말에서 본래 의미가 퇴색되므로 본+보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보조 구조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으면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무조건 띄어 써야 한다는 것도 알아둬시다.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④ 그러네요.

⑤ 그러네요... <보기>가 틀렸다는 말이 없으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 9. ①

① '엄마와'라는 부사어를 생략하면 말이 안 되니 맞는 선지네요. 라고 넘어 가려 했는데? '엄마와'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아니라 '달았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네요. 알고 보니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를 물어본 고오급 문제였습니다. < > 부사에는 문장과 성분 부사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 둬시다.

② '안'이라는 부정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목적어 앞으로 빠니까 말이 안 되니 맞는 선지네요.

③ '주다'와 같은 수여 동사는 세 자리 서술어라서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④ 이 선지가 참 소경한데, 저도 솔직히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겨우'라는 부사어가 원래 문장에서는 '하나'라는 체언을 꾸며 주고 있었는데, 위치를 옮기니까 '만들다'라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바로, 겨우, 아주' 등의 부사어는 체언을 꾸미기도 한다는 걸 알아둬시다!

⑤ 그러네요. 이건 쉽죠? 고2 문제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 10. ③

① 둘 다 규칙 활용 혹은 ㅅ불규칙 활용을 하네요. 활용할 때는 ‘-아/어’, ‘-으니’, ‘-고’ 정도를 넣어 보면 됩니다. 나아, 나으니, 낫고..

② 둘 다 규칙 활용을 하네요. 참고로 둘 다 ‘-으니’로 활용하면 ‘우니’가 되는데, 이렇게 ㄹ이 탈락하는 ㄹ탈락은 규칙 활용의 예시입니다. 설마 아직까지 못 외었다면 아래 표 보고 꼭 정리합시다.

③ 위의 ‘굽다’는 ‘굽어’, ‘굽으니’, ‘굽고’ 등으로 규칙 활용을 하지만 아래의 ‘굽다’는 ‘구워’, ‘구우니’, ‘굽고’ 등으로 ㅂ불규칙 활용을 합니다.

④ 위의 ‘이르다’는 고자질할 때의 그 이르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르’ 불규칙 현상이 일어나 ‘일러’가 됩니다. 반면 아래의 ‘이르다’는 도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경우에는 ‘러’ 불규칙이 일어나 ‘이르러’가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으니 정답은 아니네요. 헛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품사	불규칙 종류	예시
이르다	동사	‘르’ 불규칙	이르러 (도착하다)

이르다	형용사	‘르’ 불규칙	일러 (시간이)
-----	-----	---------	----------

이르다	동사	‘르’ 불규칙	일러 (고자질)
-----	----	---------	----------

⑤ 이번엔 둘 다 규칙 활용의 사례네요.

## 문장

### 11. ⑤

-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온다면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들 다 틀릴 때 손쉽게 맞히는 겁니다.

안은/안긴 문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각 절로 안길 때의 어미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알아야 문장 분석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전성 어미의 예시와 똑같으니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걸 숙지한 뒤에는, 문제를 풀어야겠죠?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보기>의 문장들을 먼저 분석한 뒤에 선지로 간다는 겁니다. 또한 안긴 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물론 주어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같은 관형어 하나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내가) 예쁘다’와 같이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안긴 문장으로 보는 것이죠.) 결국 안은/안긴 문장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빼먹지 않고 안긴 문장 모두 찾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안긴 문장을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찾기
2. 인용절 찾기 (라고/고가 있지만 찾으면 돼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서술절 찾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찾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문장의 진짜 서술어 앞에 진짜 주어말고 또 다른 주어가 있는지 찾기!)
4. 명사절 찾기 (역시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기에 꼭 거쳐야 합니다. ‘ㅁ,음,기’로 안긴 문장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5. 관형/부사절 찾기 (가장 쉬운 부분이니 마지막에 찾습니다. 핵심은 ‘예쁜, 새롭게’ 같은 관형어, 부사어 하나도 안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찾아봅시다.

ㄱ.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 ‘음식은 알맞다.’

인용절 : x

서술절 : 아이가 알맞다.라고 하면 어색하므로 x

명사절 : 먹기! ‘아이가 먹다’가 안긴 문장.

관형/부사절 : 잘 다져진! ‘음식’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 ‘음식은 잘 다져진다.’가 안긴 문장.

ㄴ.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 ‘나는 알았다.’

인용절 : x

서술절 : ‘알았다’라는 서술어 앞에 딱히 다른 주어 없으므로 x

명사절 : 사라졌음!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가 명사절로 안긴 문장.

관형/부사절 : 소리도 없이! ‘명사절로 안긴 문장 안에 또 부사절로 안긴 문장.’

ㄷ.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외쳤다.

문장의 진짜 주어/서술어 : ‘나에게 외쳤다.’

인용절 : ‘라고!’ ‘발밑을 조심하다’라는 문장이 직접 인용절로 안긴 문장.

서술절 : ‘그가’라는 또 다른 주어와 ‘외쳤다.’라는 서술어가 대응되므로 ‘그가 외쳤다.’가 안긴 문장.

명사절 : x

관형/부사절 : 달리는! ‘내가 운동장을 달린다.’라는 문장이 안긴 문장.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분해해놓고 문제 풀러 가면 매우 쉽겠죠?

① ㄱ의 명사절은 부사어로, ㄴ의 명사절은 목적어로 가능하고 있으니 맞네요.

② ㄴ은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있고, ㄱ은 없네요.

③ ㄷ은 인용절로 안긴 문장이 있고, ㄴ은 없네요. 쉽죠?

④ ㄱ과 ㄷ은 모두 관형절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네요.

⑤ ㄴ의 명사절로 안긴 문장인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에는 ‘소리가 없다.’라는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또 있지만, ㄷ의 안긴 문장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네요.



## 12. ①

- 이번엔 위의 과정을 좀 생략하고 바로 잡아볼게요. 스스로 위의 과정대로 해보세요.

- ㉠ :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 ㉡ :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 ㉢ :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 ㉣ :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① ㉣의 안긴 문장인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만, ㉠의 안긴 문장인 '내가 빌린'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전거'를 수식하는 관형절로 안긴 문장입니다. 따라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간혹 ㉠의 '내 친구의 것이다.'는 안긴 문장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긴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장의 원래 주어를 남기거나 안긴 문장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안겨야 합니다. ㉣의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처럼 말이죠. 따라서 '내 친구의 것이다.'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안긴 문장이 될 수 없고,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를 안긴 문장으로 보면 문장의 원래 주어(자전거)가 남지 않으므로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도 안긴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해해보세요.

② ㉠의 '내가 빌린', ㉣의 '마을에 사는'은 각각 자전거, 사람들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입니다.

③ ㉡의 안긴 문장인 '공연이 시작되기'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의 안긴 문장인 '피아노를 잘 치는'에는 '잘'이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④ ㉡의 '공연이 시작되기'는 '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로 안긴 것이고, ㉣의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은 주격조사 '-이'를 이용해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⑤ ㉢의 '피아노를 잘 치는'에는 '영수가'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의 '마을에 사는'에는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 13. ④

① '할머니'라는 체언에 '께서'라는 주격 조사가 붙어있으니 주체 맞고, 그 주체를 높이기 위해 '께서'와 '계시다' 사용했으니 맞네요. 높임문제는 누구를 높이는지 보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② 부사격 조사 '께'가 붙은 어머니는 객체고, 그 객체를 높이기 위해 '께서'와 '드리다' 사용했네요.

③ 1번 선지랑 같은 맥락이죠?

④ 여기서 주체는 '제가'입니다. 선생님은 부르고 있는 상대니까 상대에 해당하죠.

⑤ 4번 선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 14. ⑤

⑤ 평가원 문제에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와/과'가 쓰였을 때의 홀문장/겸문장 구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말하듯이 겸문장의 정의를 잡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술 관계가 두 번 나와야하니, '와/과'를 기준으로 두 문장으로 나눠지면 겸문장, 안 되면 홀문장입니다. ①~④는 모두 나눠지는데, ⑤는 '그 사람은 사귀어 왔다.', '나는 사귀어 왔다.'라고 나누면 문장이 어색해지니 나눠지지 않는 홀문장이고, 이 때의 '과'는 접속 조사가 아니라 행위의 상대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제가 지금 적어둔 이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개념이 비어있는 것이니 다시 복습해주세요.

## 15. ④

① 이 선지가 헛갈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중이다'를 사용하면 진행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완료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꼭 알아둡시다!

② 잘 했네요. 한국인의 감으로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③ '는'이라는 한정의 보조사를 통해 중의성을 잘 해결했네요.

④ 이렇게 되면 여행에서 돌아온 시점이 아침이 되죠? 애가 답이네요.

⑤ 장미 1 + 튜립 2 = 3송이

## 16. ②

① 뭐가 추가됐는지 봅시다. '정부에'라는 부사어가 빠졌었네요. 그런데 '정부에'라는 부사어가 없는 뒷 문장이 어색하므로 요청하다라는 동사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에 해당하네요.

② 이걸 서술어가 바뀌었네요. 문제에서 묻는 건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여기서 서술어는 제외죠. <보기> 해석 능력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③ '누나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졌네요.

④ '그 일을'이라는 목적어가 빠졌네요.

⑤ '동네 지리에'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빠졌네요.

## 17. ②

① '어제'는 과거인데 현재 시제를 썼으니 과거 시제로 바꿔 줘야겠죠.

② '민다'에 '-기'라는 피동 접미사를 잘 썼네요. '민겨지지'는 이중 피동에 해당하니 오히려 잘못 쓴 케이스죠.

③ '로사'는 자격, 의미, '로써'는 수단, 방법! 언니는 자식이라는 자격이 있으니 '로사'를 써야겠죠. 이게 헛갈리시면 '주어는 xx이다'라는 식으로 바꿔 보세요. 말이 되면 '로사', 말이 안 되면 '로써'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언니는 자식이다'로 바꿀 수 있으니 '로사'가 맞는 것이죠. 만약 '나는 게임으로써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문장이 있다면 '나는 게임이다'가 어색하니까 '로써'가 맞는 것입니다.

④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를 잘 사용했네요.

⑤ '회상'의 뜻이니 '돌이켜 생각함'이죠?

## 18. ④

- ① '비'라는 단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었는데 잘 추가했네요.
- ② '반드시'라는 긍정 표현에만 호응하는 부사를 '절대'라는 부정 표현에만 호응하는 부사로 잘 바꿨네요.
- ③ '회의를 갖다'라는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을 '회의하다'로 잘 바꿨네요.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④ 유물이 이동 당한 것이니 피동 표현을 쓴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되었다'라고 쓰면 어색하므로 어미를 '되었다는 것이다'로 바꿔야 하겠네요. 엉뚱한 걸 고쳤으니 애가 답입니다.
- ⑤ '근절'과 '뿌리 뽑다'가 같은 뜻이므로 하나를 생략해야 했는데 잘 생략했네요.

\*참고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 일본어의 영향 : ~에 다름 아니다 -> 다름없다 / 할 만하다 등등
- 영어의 영향 : 회의를 갖다 -> 회의하다, 서울에 위치하다 -> 서울에 있다 등등

## 19. ④

- ㉠ 여기에 많이 낚이셨을텐데, '주무시고'의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가 아닙니다. 그냥 '주무시다'라는 어휘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수능날 충분히 낚일 수 있는 문제이니 주의합시다.
- ㉡ '주무시다', '계시다'는 주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이에요.
- ㉢ 없네요.
- ㉣ '모시다', '뵈다'는 객체 높임의 특수한 용언이에요. 어떤 용언이 주체/객체인지 외우셔야 하는게 아니라 문장을 보고 주체와 객체 중 어떤 것을 높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높임법 문제는 누구를 높이는지가 핵심이에요.
- ㉤ '댁'이라는 특수한 명사가 있네요.

## 20. ⑤

- 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밀줄 친 부분을 과거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기'입니다. 애는 '지난주'에 구입한 것이니 발화시를 기준으로 10권을 다 읽었을 수도 있죠? 따라서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 ② 선행을 한 것이 과거라면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 ③ 소풍을 간 것이 과거라면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 ④ 영화를 본 것이 과거라면 과거의 사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 ⑤ '~ 것이다'라는 종결 표현 때문에 우체국을 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 되고, 밀줄 친 부분을 과거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시제를 민감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전 및 대화

### 21. ②

- ① 부, 조를 봤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같이'가 왜 부사격 조사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 ② 뜻에 대입해보면 '매일'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 지하철을 타는 건데 좀 어색하죠? 매일이 보이는 특징이 뭔가요? 오히려 2-2로 보는게 자연스럽겠네요.
- ③ '같이'는 단독 단어로 쓰이는데, '하다'라는 접사가 붙어 (교육과정 상으로 '하'만 접사입니다. 그냥 '-하다'가 접사로 쓰여서 파생어가 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복합어가 된 것이네요.
- ④ (-과)에 괄호가 쳐져있죠? 이걸 써야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서술어는 주어가 필요한 최소 한 자리 서술어고, '-과'가 없으면 두 자리, '-과'가 있으면 세 자리겠네요.
- ⑤ 평생을 함께한 부부! 괜찮죠?

### 22. ④

- ①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따로 등재합니다. 사전에 같은 표제어로 등재되어있는 경우 다의어입니다.
- ②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작지 못한다.. 이상하죠?
- ③ 키가 큰 건 사람, 즉 동물이니 크다 [II]에 해당하겠죠?
- ④ '나무가 크다'라는 문장은 '나는 나무를 키운다'처럼 사동사를 사용하여 바꾸면 목적어가 필요해지네요.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게 맞네요.
- ⑤ '크다'는 '-탈락'의 예시로 어간의 모음이 탈락하는게 맞습니다. 반면 '키우다'는 모음 축약의 예시로 어간의 모음과 어미의 모음이 축약하는 경우입니다.

### 23. ①

- ① 나름 난이도 있는 담화 문제네요. '그것'은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건 이미 알고 있으니 맥락상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간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 ②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감이 오죠?
- ③ '아무냐'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 ④ 모르니까 누구? 한 거겠죠.
- ⑤ '그곳'이라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앞서 나온 장소가 교실밖에 없네요.

# 음운 및 발음규정

## 24. ①

- 이 문제가 수능 14번(25번 문제)에서 활용되었네요. 이처럼 평가원은 항상 그 해 평가원 시험을 수능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니 당해년도 평가원은 마르고 닳도록 분석합시다.

tip : '음운'의 개수 -> 축약or탈락 : -1, 교체 : +0, 첨가 : +1

① '흙하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탈락),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네요. 수능 문제에서는 축약을 다루지 않아 정리하지 않았는데, 축약도 음운의 개수를 줄여준다는 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② '저녁연기'는 ㄴ첨가와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네요.

③ '부엌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와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고, '부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쌍받침이 홀받침이 되는 것은 교체입니다.)과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네요. 둘 다 교체가 두 번 일어났네요.

④ '엷지'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탈락)과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고, '뽕고'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탈락)과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네요. 둘 다 축약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⑤ '넓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탈락)과 유음화(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고, '밝는'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탈락)과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네요.

## 25. ②

① '흙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ㄹㄱ->ㄱ)과 ㄴ첨가, 비음화가 일어나서 총 3번의 음운 변동이 있었고, '닿는'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ㄹㅎ->ㄹ), 유음화가 일어나서 총 2번의 음운 변동이 있었고, '발야구'에는 ㄴ첨가, 유음화가 일어나서 총 2번의 음운 변동이 있었네요. 이거 가지고 문제 다 풀 수 있겠네요.

② '닿는'에서는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습시다.

③ '흙알'의 경우 원래 음운의 개수가 ㅎ, ㄴ, ㄹ, ㄱ, ㅣ, ㄹ의 6개였는데, (초성의 ㅇ은 음운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시죠? 또한 겹받침은 두 개의 음운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바뀐 '흙닐'에서도 ㅎ, ㄴ, ㅇ, ㄴ, ㅣ, ㄹ의 6개네요. 좀 더 깊게 들어가보면, 교체는 음운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탈락은 하나를 없애고, 첨가는 하나를 추가하죠. 그런데 '흙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인한 ㄹ의 탈락, ㄴ첨가로 인한 ㄴ의 첨가가 있었으니 음운의 개수는 뺄셈인 것입니다. 반면 '닿는'은 탈락과 교체가 있어서 음운 하나가 줄었고, '발야구'는 첨가와 교체가 있어서 음운 하나가 늘어난 것이죠.

④ 둘 다 2번인 것 확인했죠?

⑤ 둘 다 ㄴ첨가가 일어났으니 ㄴ이 첨가되었겠네요.

## 26. ⑤

① '꽃힌'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식 해설인 'ㅈ+ㅎ'이 축약되어 'ㅈ'이 되고, 결국 [꼬친]으로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ㅈ'이 'ㄷ'으로 교체되고,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고, 'ㅌ'이 구개음화에 의해 'ㄷ'으로 교체된다는, 즉 [꽃힌] -> [꼬틴] -> [꼬친]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로 본다면 1번 선지도 정답이 되겠죠. 당시에도 많은 논쟁이 있던 문제였지만, (국립 국어원이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두 번째로 답변을 했었고, 수능 이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음 축약의 4가지 경우인 'ㄱ, ㄷ, ㅂ, ㅈ+ㅎ'을 알아두시고, 축약되는 단어 중 뒤에 오는 단어가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현상들보다 선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뒤에 오는 단어가 실질 형태소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낮 한때'는 [나찬때]가 아니라 [나한때] -> [나탄때]로 발음됩니다. 아무튼 '꽃힌'은 축약이 일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가)에서 말하는 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뭉이 -> [목시] (연음) -> [목시] (된소리되기) 이므로 교체가 일어났네요. 자음군 단순화(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여 홀받침이 되는 것)를 이야기하는 (나)와는 관련이 없네요.

③ 비웃 -> [비운] 이니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가 일어났네요. 역시 자음군 단순화를 말하는 (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앓고 -> [안꼬] 이니 1번 선지처럼 자음 축약이 일어난 경우네요. (가)에서 말하는 교체도, (나)에서 말하는 자음군 단순화도 일어나지 않았습시다.

⑤ 읊고 -> [읊꼬] (자음군 단순화) -> [읍꼬]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읍꼬] (된소리되기) 순서대로 일어났네요. 자음군 단순화와 예사소리로의 교체가 모두 일어났으니 애가 답이네요. 음운 변동 파트의 경우 개념을 잘 알고 있더라도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례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법을 잘 하고 싶으면 많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 27. ④

① ㅎ+c=ㄷ이니까 맞는 선지네요. 가끔 이 축약도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꼭 알아둡시다. ㅎ과 붙는 자음에다가 점 하나 찍는 거예요. ㄱ+ㅎ=ㅋ, ㄷ+ㅎ=ㄸ, ㅂ+ㅎ=ㅃ, ㅈ+ㅎ=ㅉ

② 1번 선지와 같은 원리네요.

③ ㅎ이 어간의 끝소리이면 받침으로 적는다고 했으니 맞네요.

④ 자 이 선지를 못 골랐다면 아래 자음표를 꼭 외우도록 합시다. ㉞은 'ㅎ' 앞에 '안울림소리'가 올 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ㄹ과 같은 비음은 울림 소리에 해당하니 ㉞의 규정을 따를 수 없습시다.

⑤ '깨끗'의 ㅌ은 안울림소리에 해당하므로 ㉞의 규정을 따를 수 있네요. 아래 자음표 꼭 외웁시다!

소리 내는 방법		소리 나는 위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안울림 소리	예사소리	ㅂ	ㄷ		ㄱ	
	파열음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예사소리		ㅅ			ㅎ
	파찰음		ㅆ			
	거센소리			ㅈ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28. ③

③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묻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낫다', '날다'의 그냥 음운 변동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활용될 때'의 음운 변동입니다. '낫다'는 활용할 경우 '나아[나아]', 낫다[낫따]와 같이 교체와 탈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면 '날다'는 '날아[나아]', '날다[나타]'와 같이 탈락과 축약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둘 다 공통적으로 활용할 때는 '탈락'이 일어나므로 (가)에는 '탈락'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낫다'는 '낫다', '나으니', '나아'처럼 ㅅ불규칙 현상이 일어나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이 표기에 모두 반영되는 ㉠에 해당하는 용언이죠. 반면 '날다'는 '날아', '날으니', '날다'처럼 음운 변동에 표기에 적용되지 않는 ㉡에 해당하는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만, 문제를 천천히 해석하고 음운 변동 및 용언의 활용에 대한 개념이 빠삭하게 잡혀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9. ④

- 문제에서 물어보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해서 골라주셔야 해요.

- ① 이파리, 얼음은 모두 파생어는 맞는데, 얼음을 소리대로 적으면 어름이겠죠?
- ② 일단 마소 낫잠 모두 합성어는 맞는데, 낫잠을 소리대로 적으면 나잠이겠죠?
- ③ 웃음과 바가지 모두 파생어는 맞는데, 바가지를 어법에 맞게 적으면 박아지겠죠? 참고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건 원형을 살린다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 ④ 옷소매와 밥알 모두 합성어 맞고, 원형을 다 살려 적었으니 애가 답이네요.
- ⑤ 꿈은 파생어이자 ㉠, ㉡를 모두 지키게 맞는데, 사랑니는 합성어네요. 파생어가 아니라 틀렸어용.

30. ③

③ ㉠의 경우 단모음 'ㅣ'와 'ㅑ'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ㅑ'가 되었고, ㉡의 경우 단모음 'ㅑ'와 'ㅑ'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ㅑ'가 되었습니다. ㉢에서 많이들 고민했을텐데, ㉢의 경우에는 단모음 'ㅣ'와 'ㅑ'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ㅑ'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기여'가 아니라 '겨'가 되었겠죠. ㉣이 '살피여'가 아닌 '살펴'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은 '반모음 첨가'의 예시로, 단모음 'ㅣ'와 'ㅑ' 사이에 ㅈ 반모음인 'ㅣ'가 첨가되어 'ㅑ'가 된 것입니다. 기+어=기여, 베+어=베여, 깨+어=깨여 등이 이 현상의 예시인데, 표준발음은 아니고 수의적 현상이라고 하여 간간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모음 첨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용언의 규칙적 활용에 해당하는 '모음 축약'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31. ⑤

- ① ㄹ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ㄱ으로 바뀌었네요. 결받침에서 홀받침으로 변하는 건 탈락에 해당하니 맞는 선지네요.
- ② 1번 선지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 ③ ㅍ이 ㄱ으로 바뀌었네요. 쌍받침이 홀받침이 되는 건 탈락이 아니라 교체이므로 맞는 선지네요.
- ④ 읊기 -> [읊기] -> [읍기] -> [읍끼] 순서대로 바뀌었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지키기 위해 탈락 (ㄹㅍ -> ㅍ), 교체 (ㅍ -> ㅂ)이 모두 일어났으니 맞는 선지네요.
- ⑤ 밝는 -> [밧는] -> [밧는]으로 바뀌었네요. 탈락과 교체가 모두 있었지만, 교체 (ㅂ -> ㅁ)는 비음화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문법 문제에서 지식 뿐만 아니라 <보기> 해석 능력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32. ②

- 역대 수능, 모평은 물론 해당 학년도의 6평, 9평에서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수능 때 등장한 맞춤법 문제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당황시킨 문제였죠. 여러분도 수능날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등장할지 모르니 절대 당황하지 말고 실력대로 풀어냅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 이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 ① '엿저녁'이 맞아요.
- ② 안건을 부치다. 이게 맞습니다.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 ③ '적잖은'이 맞아요.
- ④ '깍두기'가 맞아요.
- ⑤ '넓적하게'가 맞아요.

33. ③

① 두 개의 단모음 ‘ㅏ’와 ‘ㅣ’가 줄어서 제 삼의 단모음인 ‘ㅓ’가 되었으므로 모음의 축약에 해당합니다.

② 이게 논란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알아 두시라고 실어 봤습니다. 일단 ‘반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반모음이란 이중 모음 안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중 모음의 ‘소리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닌데 이중 모음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런 정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반모음에는 ‘w’와 ‘j’가 있다는 활용의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w는 ‘ㅏ/ㅓ’의 소리를 나타내고 j는 ‘ㅣ’의 소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중 모음 ‘ㅓ’는 단모음 ‘ㅓ’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반모음 ‘j’에 단모음 ‘ㅓ’가 합쳐진 것이고(발음 해보면 ‘이오’와 같이 발음되겠죠? ‘이오’를 빨리 발음하면 ‘ㅓ’가 됩니다.), 이중 모음 ‘ㅓ’는 단모음 ‘ㅓ’와 단모음 ‘ㅓ’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반모음 ‘w’에 단모음 ‘ㅓ’가 합쳐진 것이죠. ‘우에’를 빨리 발음하면 ‘ㅓ’가 되니까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다시 설명해 보면 반모음은 이중 모음을 만들어주는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직 헷갈리신다면 이중 모음 표를 보시고 각 이중 모음은 어떤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인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에 대해서 이해한 뒤 이 선지에 대한 해설을 해 봅시다. 이 선지의 상황은 ‘ㅓ’의 단모음 ‘ㅓ’가 반모음 ‘w’로 바뀌고, ‘ㅓ’의 단모음 ‘ㅏ’와 합쳐져서 ‘ㅓ’라는 이중 모음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음절’의 개수는 줄어들지만, (ㅓ아 -> ㅓ) ‘음운’의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ㅓ, ㅏ, ㅓ의 3개 -> ㅓ, w, ㅓ의 3개) 축약이나 탈락은 음운의 개수를 줄여줄게 하니 이런 반모음화는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고 음절의 수가 줄어든 ㉠의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음운의 교체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ㅏ->w)

이렇게 끝내면 참 아름다운데! 교과서에 따르면 이런 반모음화는 모음의 축약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모음 축약을 음절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ㅓ아 -> ㅓ’에서는 음절은 확실하게 줄어들었으니 모음 축약 자체는 맞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는 ‘음운의 탈락이나 축약을 물어봤으니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를 음운 축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르면 ‘ㅏ’라는 음운이 사라져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으니 축약이라는 것이죠.

어렵죠?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출제하려면 <보기>를 줘야 한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혹은 연계 교재의 관점인 첫 번째 관점(반모음화는 음운 축약이 아니다)을 적용해서 출제하겠죠. 만약 수능 문제에서 <보기>없이 이 내용을 물어봤는데 두 번째 관점(반모음화는 음운 축약이다)을 적용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제기하시면 됩니다. 2019 수능 대비 수능특강 화작문편 237쪽 2번 문제입니다. 혹시 모르니 박제 ^~^

여러분은 위의 내용을 읽으면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모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탑재하시고, 반모음화는 음운의 축약이 아니라고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로 단모음 두 개가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참고) 이 경우에는 단모음 두 개가 합쳐지면서 앞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ex. 살피+어 = 살피-> | + ㅣ -> j + ㅣ, 배우+어 = 배워-> ㅓ + ㅣ -> w + ㅣ)

③ 애는 대표적인 ‘ㅡ’탈락의 예시이죠? ‘ㅡ’탈락은 어간의 형태가 변하지만 규칙 활용이라는 것만 챙겨두고 넘어갑시다.

④ 역시 어미의 단모음 ‘ㅓ’가 탈락한 상황이네요.

⑤ 이것도 ‘동음 탈락’이라고 하여 대표적인 규칙 활용의 예시입니다. 알아 둡시다.

고전 문법

34. ④

① 고전 문법 문제는 쫓지 않고 현대어 풀이와 비교하며 풀어보면 됩니다. ‘ㄷ리’와 ‘비취요미’가 각각 주어,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② ㄴ의 현대어 풀이에서 ‘가’가 추가 되었으니 중세 국어의 ‘네’가 ‘너+ㅣ (주격 조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또한 ‘부테’ 뒤에 ‘되다’라는 서술어가 나왔으니 보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구요.

③ 모두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풀이가 되므로 ‘ㅅ’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모두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풀이가 되므로 부사격 조사는 절대 아니네요.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는 것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전 문법에서 틀리는 건 진짜 안타까워요.

⑤ 각각 ‘ㄹ’과 ‘를’이라는 다른 형태의 목적격 조사가 쓰이고 있어요.

35. ③

③ 역대급 문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단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말하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러 가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타자자타타자자’라고 적어두고 5번을 고르셨을 겁니다. ㉠와 ㉡ 둘 다 아래 부분에는 목적어가 없거든요. 하지만 목적어가 왜 없는지까지 생각하게 한 극악무도한 문제였습니다. ㉠와 ㉡ 모두 아래 부분의 현대 국어 부분의 동사는 ‘열리어’, ‘흩어진’입니다. 이들은 각각 ‘열다’, ‘흩다’라는 동사의 원형에 ‘-리’라는 피동 접사나 ‘-어지다’라는 보조적 연결어미 + 보조 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진 ‘피동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둘 다 피동표현이 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피동문이 되면 목적어가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열다, 흩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타동사로만 쓰이고, 중세 국어에서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단 아래에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어둘테니 정리해두고, 이 문제의 해설을 이해해봅시다.

피동 표현 - 파생적 피동 : 타동사 어근 + 피동 접사 (이, 히, 리, 기)  
- 통사적 피동 : 모든 용언의 어간 + ‘-어지다, -게 되다’

36. ④

① ‘이’ 대신 ‘엇던’이 쓰이면 판정 의문문이 설명 의문문으로 바뀌겠네요. 그럼 어미도 ‘-가’에서 ‘-고’로 바뀌어야겠네요.

② ‘엇다’ 대신 ‘평안’을 쓰면 설명 의문문이 판정 의문문으로 바뀌겠네요. 원래는 상태가 어떤지 구구절절 설명해야하는데 평안으로 바꾸면 평안한지 아닌지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럼 ‘-고’ 대신 ‘-가’를 써야겠네요.

③ 지금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네요.

④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꾸면 ‘-나다’ 대신 다른 걸 써야하는 건 맞는데, 판정 의문문인 것은 그대로이므로 ‘-가’를 써야겠네요.

⑤ 그러네요..

37. ③

- ①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가'나 '이'가 아닌 'ㅣ'를 사용했죠.
- ② 항상 현대어 풀이까지 잘 봐야 합니다. 현대어의 '살은'에 대응하니 '숯'은 현대어의 '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종성이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 존재했었네요.
- ③ 높임법 문제의 핵심은 누구를 높이느냐입니다! '받즈온'의 선어말 어미 '-줍-'이 '부모'라는 부사어를 높이고 있으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네요.
- ④ 그렇네요.. 현대어에선 '것이라'처럼 체언과 조사를 딱 구분해서 쓰죠.
- ⑤ ㅂㅅ이 같이 쓰이고 있네요.

38. ④

- ① 나아가 = '어간(나-)+어미(-아)+어간(가)' - ㉠  
 나사가 = '어간(낱-)+어미(-아)+어간(가)' - ㉡ 아님
- ② 돌아오 = '어간(돌-)+어미(-아)+어간(오-)' - ㉠  
 도라오 = '어간(돌-)+어미(-아)+어간(오-)' - ㉡ 아님
- ③ 듣보 = 어간(듣-)+어간(보-) - ㉠ 아님, ㉡ 맞음
- ④ 빌어먹 = '어간(빌-)+어미(-어)+어간(먹-)' - ㉠  
 빌먹 = '어간(빌-)+어간(먹-)' - ㉡
- ⑤ 오르내리 = '어간(오르-)+어간(내리-)' - ㉠ 아님  
 오락느리 = '어간(오락-)+어간(느리-)' - ㉡

39. ④

- ① 그렇죠? '어법대로 적는다'가 무슨 말인지 지문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그렇죠? '소리대로 적는다'가 무슨 말인지 지문을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③ 그렇네요.
- ④ 아니죠? 어법대로 적으면 '읽아리'가 되겠죠.
- 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읽'을 발음할 수 없어요.

40. ①

- ① 이건 중세, 현대 둘 다 소리대로 적은 케이스네요. 바로 정답입니다.
- ②~⑤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대로/어법대로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정리해 둡시다.